

청소년의 자아상과 사회적 민감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자아상 - 우울 - 불안 - 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IMAGE AND SOCIAL SENSITIVITY IN ADOLESCENTS :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SELF-IMAGE,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SENSITIVITY

신민섭** · 소준현*** · 홍강의**

Min-Sup Shin, Ph.D.,** Jun-Hyun Soh, M.D.,*** Kang-E M Hong, M.D.**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상과 우울, 불안,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자아상이 부정적인 청소년들이 자아상이 긍정적인 청소년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대인 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낮은 자아상이 사회적 민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낮은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들이 우울이나 불안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되는지 그 인과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 여 학생 총 1,602명(남자 697명, 여자 905명)에게 Offer의 자아상 척도와 간이 정신진단 검사의 하위 척도중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 척도를 실시한 후, 자아상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아상이 낮은 집단이 자아상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 척도점수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상과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를 LISREL로 분석한 결과, 자아상이 사회적 민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자아상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불안과 대인 공포를 발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고, 사회 공포증 청소년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있어 임상적 시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중심 단어 : 청소년 · 자아상 · 사회적 민감성 · 우울 · 불안 · 대인 공포증.

서 론

은 자기-자각(self-awareness)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Elkind(1984)는 청소년기에 자기-자각이 급증하게 되는 이유를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과 관련지어 "가상적 청

* 본 논문은 199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지정 연구비의 보조로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소아정신분과) Division of Child-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 효성가톨릭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yosung-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중(imagery audience)”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가상적 청중”이란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듯이 타인의 생각도 개념화할 수는 있지만, 아직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여 생גיע 되는 청소년기 특유의 인지적 왜곡 현상으로, 청소년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 외모, 생각, 감정에 몰두하는 것처럼, 타인들도 자신들의 행동, 외모, 생각, 감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이렇게 자신이 타인들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신념 결과, 자기-자각이 더욱 고양되며, 따라서 자신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 쉽고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자기 도취적 욕구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높은 자기 도취적 욕구로 인하여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 현실적 자기(real self)간에 괴리가 커질 위험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통스런 자기-자각이 더욱 첨예화되어 우울하거나 불안한 정서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으며, 더구나 “가상적 청중”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인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고, 타인이 자신의 실수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이라는 예민성이 증가되리라 생각된다.

사회적 불안이나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므로 타인에 대한 공포라기 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타인이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눈치채고 자신을 싫어하거나 앓을까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다(이시형 1991). Nichols(1974)는 대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지각하거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평가되는 것에 대한 예민성과 공포를 보이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춘기 변화에 따라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대한 자의식이 가장 증가되고 가상적 청중과 같은 자기중심적 인지(cognition)로 인하여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예민해

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은 그 시기의 특성상 사회적 불안이나 대인 공포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되며, 이는 자신의 표정 하나 하나에까지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자의식과 타의식의 악순환으로 인해 대인 공포가 형성되는 기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이시형 1991). 특히, 사회 공포증의 평균 발병 연령이 후기 아동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며(Turner와 Beidel 1989), 전체 전집에서의 유병율에 비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집단에서 유병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시형 1991)은 상술한 바와 같은 청소년기적인 특성이 사회 공포증의 증상 형성 및 발병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청소년들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과 관련지어 사회 공포증의 발병 시기 및 증상 형성 기전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온 개념중의 하나가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Offer(1990)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상(self-image)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들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외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심리-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상적 자기와 현재의 자기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더욱 고통스런 자기-자각이 증가되고 그 결과, 불안이나 우울한 상태가 초래되어 남들이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예민성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정상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대인 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예민성을 신체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아상과 관련지어 알아본다면, 왜 사회 불안이나 대인 공포증이 주로 청소년 초기에 발병하며, 청소년기에 가장 유병율이 높은 지, 그러한 사회 공포 증상 형성 기전(mechanism of social phobic symptom formation)을 밝히는데 어떠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이 시기 특유의 인지적 특성과 연관시켜 설명한 Elkind(1984)의 이론 및 Offer(1990)의 청소년들의 자아상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입각하여, 우리 나

라 정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상과 우울, 불안,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자아상이 부정적인 청소년들이 자아상이 긍정적인 청소년들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대인 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두번째로는 낮은 자아상이 사회적 민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낮은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들이 우울이나 불안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되는지 그 인과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과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사회 불안이나 대인 공포증 환자가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타인이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눈치채고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 불안해하는 임상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방 법

1. 연구 대상

서울과 충주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남, 녀 학생 총 1,602명(남자 697명, 여자 90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중 중학생이 729명, 고등학생이 873명이었다(연령 범위 = 12~19세, 평균 연령 = 13.87 ± 0.91세).

2.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Offer의 자아상 척도(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 1992 : 이하 OSIQ-R이라 약칭)와 간이 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1977 : 이하 SCL-90-R이라 약칭)가 사용되었다. OSIQ-R은 Offer 등(1992)이 13세에서 18세 연령 범위의 정상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총 1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은 12개의 하위 척도별 점수로 환산되며, 10개의 중요한 하위 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자아상 점수가 산출된다. 전체 자아상 점수는 크게 5가지 범주-심리적 자기, 사회적 자기, 성적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자기, 그리고 대처 능력과 관련된 자기-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적 자기(psychological self)"는 충동 조

절 능력,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신체상(body image)과 관련된 것이며, "사회적 자기(social self)"는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도덕성, 미래에 자신이 택할 직업이나 교육에 대한 목표와 관련된 것이고, "성적 자기(sexual self)"는 성에 대한 태도나 성적 행동, "가족과 관련된 자기(familial self)"는 가족에 대한 정서나 태도, 그리고 "대처 능력과 관련된 자기(coping self)"는 외부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정신 병리 및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자아상을 나타낸다. OSIQ-R에 대한 한국 표준화 연구(홍강의, 김봉석 그리고 신민섭 1995)에서 산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 α = .84로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SCL-90-R은 Derogatis(1977)가 개발한 자기 보고형 다차원 증상목록 척도로, 김광일 등(1984)이 한국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하위 증상 척도중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을 평가하였다. 우울 척도와 불안 척도는 우울과 불안 증상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민감성 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거절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과 예민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OSIQ-R과 SCL-90-R은 수업 시간중에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였는데, 검사 수행에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분석 방법

OSIQ-R로 측정된 전체 자아상 점수에서 상위 15%에 해당되는 집단을 "자아상이 높은 집단"으로, 전체 자아상 점수에서 하위 15%에 해당되는 집단을 "자아상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한 후에, 두 집단간에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 척도점수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ANOVA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자아상-우울-불안-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는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LISREL : Joreskog와 Sorbon 198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각 집단별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 점수는 Table 1과 같다. 자아상이 낮은 집단이 자아상이 높은 집단에

Table 1. 각 집단별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자아상이 높은 집단		자아상이 낮은 집단		F(SI)	F(SEX)
	남자(n=162)	여자(n=237)	남자(n=85)	여자(n=150)		
우울	24.31(9.70)	25.22(8.51)	35.14(10.92)	36.03(10.01)	**	*
불안	18.32(8.37)	18.11(6.66)	25.94(8.78)	26.37(8.02)	**	NS
사회적 민감성	19.35(6.59)	19.29(5.65)	25.82(7.01)	25.19(6.93)	**	NS

F(SI) :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자아상의 효과 검증

F(SEX) :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성차 검증

*p < .0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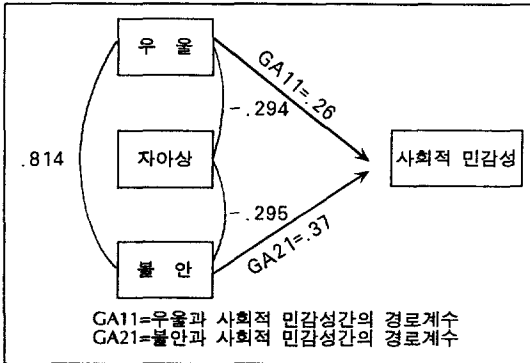


Fig. 1. 자아상-우울-불안-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를 보였으며($F=169.09$, $df=1,630$, $P<.001$; $F=158.17$, $df=1,630$, $P<.001$), 사회적 민감성 점수상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133.33$, $df=1,630$, $P<.001$). 자아상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없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점수상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F=3.92$, $df=1,630$, $P<.05$), 불안 점수와 사회적 민감성 점수상에서는 남, 여간의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자아상-우울-불안-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상과 사회적 민감성간에 직접적인 경로(path)가 설정된 모델(모델 1)과 자아상과 사회적 민감성간에 직접적인 경로가 설정되지 않고 우울, 불안과 사회적 민감성간에만 직접적 경로가 설정되고 자아상은 이들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모델(모델 2)을 LISR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델 2가 관찰된 자료에 가장 잘 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oodness of Fit Index : $GFI=.997$; $\chi^2=.97$, $df=1$, $p=.325$), 이러한 결과는 높거나 낮은 자아상이 사회적 민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지는 않으며, 자아상이 사회적 민감성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우울과 불안이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Fig. 1). 즉,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자아상의 효과가 완벽하게 우울과 불안에 의해 매개됨을 나타내주며, 따라서 자아상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아상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우울이나 불안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민감성이 더욱 증가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아상, 우울, 불안 요인이 사회적 민감성 점수 전체 변량의 64.5%($R^2=.6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상, 우울, 그리고 불안 요인이 사회적 민감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상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상과 우울, 불안,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자아상이 부정적인 청소년들이 자아상이 긍정적인 청소년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대인 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고자, 우울, 불안, 사회적 민감성 척도 점수상에 자아상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상이 낮은 집단이 자아상이 높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아상(self-image)이라고 주장한 Offer(1990)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높은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들이 낮은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심리-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아상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우울 점수상에서 더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여자들이 청소년 남자들보다 높은 우울증 유병율을 보인다는 임상 연구(Lefkowitz와 Testiny 1985)뿐만 아니라, 정상 청소년 집단에서도 우울 정도에 있어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홍강의와 신민섭(1994), 그리고 Offer 등(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침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을 Hoeksema(1987)는 남자는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비해, 여자는 우울한 기분의 원인에 대해 만주함으로써 우울한 정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불안 점수와 사회적 민감성 점수상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불안 점수와 사회적 민감성 점수상에서는 자아상의 효과만 유의미하였고,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아상이 낮은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불안이나 사회적 민감성의 증가를 보인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대학생들이 유사한 성비를 보인다는 결과(Borkovec 등 1974; Zimbardo 1986) 및 사회 공포증에서 성차가 없으며, 동일한 성비를 보인다는 결과(Arnies 등 1983; Barlow 등 1985, 1986; Rapee 등 1988; Thyer 등 198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상-우울-불안-사회적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낮은 자아상이 사회적 민감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자아상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그 결과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불안과 대인 공포를 보이는 청소년 환자 집단에 대한 치료 및 예방적 측면에서 임상적 시사점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즉, 청소년들이 사회적 불안과 대인 공포를 발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자아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자기-자각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심을 자신의 긍정적 측면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낮은 자아상과 관련된 우울 증상이 사회적 민감성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대인 공포증 환자들이 종종 자기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자살 시

도까지 하게 되는 임상 증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함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인 공포증 환자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과도 일치한다(이시형 1991).

청소년기에 보이는 "가상적 청중"과 같은 인지적 특성은 개인의 인지 발달 수준과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연령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형식적 조작적 사고가 더욱 성숙하게 되어 확장되어진 추상적 사고 능력과 가정내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가상적 청중과 같은 인지적 왜곡 현상과 자의식을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Riley 등 1984)에 입각해볼 때, 부모와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나 생각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타인이 자신을 주목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음을 주지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 치료적 접근이 자아상이 낮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적 불안과 대인 공포 증상을 발전시키지 않도록 돕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construction) 방법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통스런 자기 자각이 철회화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우울이나 불안감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정상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임상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성격적으로 원래 예민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사회적 불안과 대인 공포를 보이는 과정에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는 다른 인과적 관계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한가지 가능성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인과적 모델과는 반대로 높은 사회적 민감성이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여 재검증해본 결과, 이러한 모델은 관찰된 자료에 잘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민감성, 우울, 불안 요인이 전체 자아상 점수 변량을 불과 10% 정도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상, 우울, 불안 요인이 사회적 민감성 점수 전체 변량의 6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 비해서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청소년 집단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시기의 발

달 과제인 사춘기 변화에 대한 적응을 포함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자기 중심적인 인지적 특성에 따른 자의식의 증가로 인하여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우울감이 사회적 민감성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안이나 대인 공포증의 평균 발병 연령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14~15세인 것(이시형 1991; DSM-IV 1994)과 전체 전집에서의 유병율에 비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집단에서 더 유병율이 높다는 사실도 청소년기적인 특성과 사회적 민감성의 증가가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주며, 본 연구 결과도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자아상을 가진 청소년들이 우울이나 불안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되어 이후에 사회 불안이나 대인 공포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었으나, 그러한 자아상-우울-불안-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인과적 모델을 사회 불안 장애나 대인 공포증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 : 간이 정신 진단 검사. 중앙적성 출판부, 서울
- 이시형(1991) : 대인 공포증의 치료. 집현전, 서울
- 홍강의·김봉석·신민섭(1995) : 한국판 Offer 자아상 척도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게재 예정
- 홍강의·신민섭(1994) :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격체감 발달. 신경정신의학회지 33(6) : 1378-138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 Washington, DC
- Amies PL, Gelder MG, Shaw PM(1983) : Social Phobia : A Comparative Clinical Study. British J Psychiatr 142 : 174-179
- Barlow DH, Vermilyea J, Blanchard EB, Vermilyea BB, DiNardo PA, Cerny JA(1985) : The Phenomenon of Panic. J Abnorm Psychol 94 : 320-328
- Borkovec TD, Stone NM, O'Brien GT & Kaloupek DG (1974) : Evaluation of a Clinically Relevant Target Behavior for Analog Outcome Research. Behavior Therapy 5 : 503-513
- Derogatis RL(1977) :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I. Baltimore Clinical Psychology Research Unit. Johns Hopkins University
- Elkind D(1984) : All Grown Up and No Where to Go : Teenagers in Crisi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Reading, Mass
- Hoeksema SN(1987) : Sex Difference in Unipolar Depression :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 : 259-282
- Joreskog K, Sorbon D(1986) :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Scientific Software, Mooresville IN
- Lefkowitz MM, Testiny EP(1985) : Depression in Children : Prevalence and Correlate. J Consult Clin Psychol 53 : 647-656
- Nichols KA(1974) :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J Medical Psychol 47 : 301-306
- Offer D, Ostrov E, Howard K, Atkinson R(1990) : Normality and Adolescenc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3(3) : 377-388
- Rapee RM, Barlow DH(1988) : Cognitive Restructuring and Relaxation in the Treatment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A Controlled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22nd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New York
- Riely T, Adams G, Nielson E(1984) : Adolescent Egocentrism : The Association among Imagery Audience Behavior, Cognitive Development & Parent Support & Rejection. J Youth & Adolescence 13 : 401-417
- Thyer BA, Parrish RT, Curtis GC, Nesse RM, Cameron OG(1985) : Ages of Onset of DSM-III Anxie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 134 : 343-351
- Turner SM, Beidel DC(1989) : Social Phobia : Clinical Syndrome, Diagnosis, and Comorbidity. Clin Psychol Rev 9 : 3-18
- Zimbard PG(1986) : The Stanford Shyness Project. In WH Jones, JM Cheek, SR Briggs(Eds), Shyness :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Plenum, New York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IMAGE AND
SOCIAL SENSITIVITY IN ADOLESCENTS :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SELF-IMAGE,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SENSITIVITY

Min-Sup Shin, Ph.D., Jun-Hyun Soh, M.D., Kang-E M Hong, M.D.

Division of child-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among self-image,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sensitivity in adolescents. 1602 normal adolescents(697 males and 905 females) responded to self report scales-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 3 subscales of Symptom Checklist-90-Revis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NOVA and LISREL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image on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sensitivity, and to test the relationship among the above 4 variables. Adolescents with low self-imag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the scales of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sensitivity than did adolescents with high self-image. The result of LISREL showed that the low self-image leads to the emotional state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ose of depression and anxiety lead to the increase of social sensitivity, suggesting that self-image has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anxiety, and has an indirect effect on social sensitivity in adolescent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dolescent social phobia.

KEY WORDS : Adolescents · Self-image · Social sensitivity · Depression · Anxiety · Social phobia.